7강 루쉰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방식

(1교시)

■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

※ 학습목표
동서양의 죽음관과 루쉰이 생각하는 죽음을 알아본다.

▲ 동양과 서양에서의 죽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서양의 경우 죽음의 문제는 현세적인 삶의 태도를 가장 크게 결정짓는다. 영생을 얻기 위해 현세의 삶을 충실하게 살며 죽음이란 이 세계의 끝이고 영생의 새로운 열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동양에서의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비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은 근대적인 서양의 세계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불교적 세계관에서 보자면 죽음의 문제는 죽음 그 자체이기 보다는 다른 삶으로 넘어가기 위한 문지방과 같은 것이다. 즉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신체가 다른 신체가 되어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가, 내가 다른 리듬을 타고 우주로 개입해 흘러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줌으로써 죽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 삶의 한 형식으로서의 죽음
루쉰에게 있어 죽음은 삶에 대한 '태도'와 연관되는 문제이다. 즉 그는 어떤 삶은 바로 죽음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소설 속 인물들의 죽음을 통해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인간들은 다양한 시공간 그리고 각기 다른 이념의 영향력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루쉰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어떤 삶이 자기 시대에 맞는 삶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루쉰이 죽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암흑, 어떤 비참함, 어떤 죄악과 연관된 것들이다. 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류 전체의 혹은 생명의 '진보적' 성격과 잠재력은 어떤 고난(혹은 개별적 인간의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라고 루쉰은 말한다. 이때, 루쉰이 생각하는 '진보'에 대한 믿음은 어떤 목적, 어떤 방향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없었던 곳을 밟고 지나가서 생긴 것이 길'이라는 말처럼 더 나은 것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잠재력에서 나오는 운동성 그 자체를 의미할 뿐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7강 루쉰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방식

(2교시)

■ 허무한 삶의 죽음과 희생자의 죽음

※ 학습목표
『흰빛』과 『복을 비는 제사』의 두 인물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본다.

▲ 설탕탑 같은 인생, 『흰빛』의 천스청
천스청의 삶이 얼마나 헛된 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너져 내린 설탕탑 같은 앞길이 그의 눈앞에 가로놓여 있었다. 이 앞길은 다시 점점 확대되어 그의 모든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말았다."*는 그 자신의 자각 속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인생을 마치 도박꾼들이 '한탕'에 모든 것을 걸듯, 오직 한 가지 설탕탑 같은 혹은 은덩이 같은 것에만 걸고 있었던 것이다. 오래된 시첩이나 경서를 읽던 책상 밑에서 흰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는 점은 천스청이 걸어온 인생의 길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나 하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녹슨 동전이나 깨진 사기그릇 같은 것일 뿐이라는 암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책상 밑을 파내려가던 천스청이 만나게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죽음이다. 시대착오적인 삶, '어떤 암흑' 속에서 헤매는 삶의 결과는 죽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루쉰은 잔인하고도 집요하게 묘사한다.

▲ 희생자, 『복을 비는 제사』의 샹린댁
『복을 비는 제사』는 한 마을에서 행해지는 제사의식을 둘러싼 사람들의 태도와 그 속에서 희생당하는 여자의 이야기이다. "아무데도 마음을 붙일 데가 없는 샹린댁은 사람들에게 쓰레기더미에 내던진, 보기만 해도 싫증나는 장난감으로 취급되었다." '복을 비는 제사'는 1년 중 마지막으로 치르는 큰 의식이지만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남자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본래 그 고장 사람이 아닌데다 과부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샹린댁이 넷째 아저씨 댁의 고용인이 되어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그 집 제사 때 허드렛일을 하는 것으로 자기존재를 증명한다. 그러나 샹린댁의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녀의 불행의 출발은 재혼에서부터 비롯된다. 원치 않는 결혼 보다는 자유를 원했지만,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 루쉰이 『노라는 집을 나간 후 어떻게 되었는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집을 나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타락하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두 길밖에는 없다. 샹린댁 역시 마찬가지이다.

▲ 『복을 비는 제사』에 나타난 지식인의 문제
『복을 비는 제사』에 '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까지의 배경이나 사건의 개연성을 설명해주는 앞 토막에서 글을 쓰는 지식인의 문제를 보여준다. 니체 식으로 말하자면 지식인은 근본적으로 소인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인은 자신의 기만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지만 루쉰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솔직하다. 루쉰의 비판은 그 비판의 칼날이 항상 외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돌아온다. 사람들은 끝까지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패를 숨기고 살아간다. 루쉰에게 있어 혁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명은 내가 가진 모든 패를 다 뒤집어 놓고 네가 가진 모든 패를 다 보인다음 그 패를 바꾸어 판을 뒤집는 것이다. 자신의 패를 숨기고 있는 지식인의 자기기만에 관련된 문제가 『복을 비는 제사』 앞부분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